

#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활동<sup>†</sup>

김승환

동아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 Citizen Participation of the Million Amenity Park

Kim, Seung-Hwan

Faculty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activ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movement of Million Amenity Park's creation which was proposed by citizen participation for large scale's flat park within city. This park was proposed by the Busan Green Plan, commission study in 1999. The location of park site was finally proposed at Dunchi-do, Bonglim-dong, Gangseo-gu, Busan and neighbor areas. The area of park site is approximately 500ha included the surface area of West-Nakdong River. Citizen's organization for Million Amenity Park which has 3,500 members, was established in 2001 in order to compose Million Amenity Park.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have quickening period, germination period, the 1st growing period, and the 2nd growing period, and then the results of this activity was also arranged by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The movement for this park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ctivity for participating and understanding all the citizens during 7 years. And then the activities for this park were as follows: every information, fund-raising campaign, organization, purchase of park site, contribution of purchasing park site to Busan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the mov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 such as this park movement were 1) respectively found to have the settlement in the movement of NGO, 2) the possibility of large scale's park fostering by public and civil partnership, and 3) the model presentation of frontier park in the citizen participation's types which will be able to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city.

**Key Words:** NGO, Park Movement, Urban Park, Frontier Park, Busan City

<sup>†</sup> : 이 논문은 2000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국외연구파견)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eung-Hwan Kim, Faculty of Urban Planning and Landscape Architecture, Dong-A University, Busan 604-714, Korea, Tel.:+82-51-200-7575, E-mail: skim@dau.ac.kr

## I. 서론

21세기는 불질적인 풍요로움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속에서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이며, 이러한 과제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100만평문화공원운동(이하 '100만평공원운동')」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부산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공원조성운동 중의 하나이다.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의 창립취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를 눈앞에 둔 부산은 이를 계기로 세계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하여 400만 부산시민의 지원을 모아 부산을 어떻게 자연성이 높은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어메니티 도시, 그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이벤트를 계기로 자손만대에 늘 푸른 꿈과 새 삶의 희망을 가꿀 수 있는 녹색 공간의 유산과 정신문화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는 시민들이 먼저 생각하고 행정과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 중략 -

우리의 2세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고,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필적할만한 공원이 있는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 꿈이 있는 도시를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이하 생략 - ”

이상 취지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욕시민이 자랑하는 센트럴파크보다 더 좋은 공간을,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남겨주자고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 바로 100만평공원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문화가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우리의 아들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넓은 평지숲이 있는 「100만평문화공원(이하 '100만평공원')」,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부산시민이 자부심을 갖자는 주민참여의 발상이 강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원사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 조성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100만평공원운동을 비롯하여 도심내 1평공원만들기, 내셔널트러스트형 자연환경보전 및 공원조성 사례들이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

는 실정이다. 공원조성에 관한 주민참여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사당동 양지공원(김성균, 2001)은 567평의 도로 부지로 구획된 공간을 1998년부터 시민의 제안으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계획, 조성과정에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공원조성에 참여한 사례이다. 도시연대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민참여에 의한 1평공원만들기 사업을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원서동 빨래골쉼터, 가회동 노틀담어린이집 한평공원, 금호동 한평공원, 우수동 한평공원, 수색동 한평공원, 인사동 한평공원, 미아동 한평공원, 금화초등학교 한평공원, 창동노인복지센터 한평공원 등의 사례가 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2003: 2004: 2005: 김연금과 성종상과 조석만과 이규목, 2003). 도시발전연구소는 산관학 파트너십에 의해 부산의 도심 가로변에 정동 회화나무쉼터공원을 조성하였다(김승환과 한창석과 조경21세기를위한모임, 2002). 이와 같이 도심내 자투리 공간을 찾아 적은 비용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이 한평공원을 만들어가는 사례는 그 과정과 수법에 있어서 주민참여에 의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1895년 영국에서 시작한 이래 보존해야 할 수려한 자연이나 역사문화 공간을 중심으로 기부 또는 중여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보전, 관리운동으로서 정착하여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 발족한 이래 시민의 기금으로 매화마름군락지 800여평을 매입하면서 보전운동을 벌려왔고, 용인 대지산자기운동은 대지산땅한평사기운동을 벌려 1차 100여평을 매입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광주에서는 무등산을 지키기 위한 무등산트러스트운동이 전개되어 무등산 보전에 성과를 거두었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 2002).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만안구도심공원조성을 위한 범시민기구」를 구성하고 시민홍보, 야생화심기, 공원청소 등에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환경보전과 공원조성에 있어서 기금 모금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중 100만평공원운동은 100만평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

하자고 주장한 점, 시민참여 유도과정, 공원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 토지의 기부 등 다양한 추진과정과 내용 등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운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하 100만평공원운동의 구상배경, 주민제안 내용, 논의과정, 주민참여활동의 전개, 추진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서 분석, 고찰하면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대상지의 위치 및 현황

### 1. 대상지의 선정

100만평공원은 도심의 한 장소에 평지공원으로서 100만평에 달하는 대공원을 만들자는 발상이지만, 마땅한 부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 여건에서는 위치 선정에서부터, 대상지의 확보, 나아가 합의형성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성국(2001)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100만평공원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치 선정이나 추진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원의 이러한 과제들을 주민운동 차원에서 해결하고 추진한다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100만평공원은 지가, 대규모의 평지 확보, 토지 매입 용이성, 접근성, 환경훼손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대상지가 검토되었다<sup>1)</sup>.

시가화 구역은 토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며, 평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기장지역과 강서지역의 2개 권역이 상기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권역중 동부권의 기장지역은 평지 면적의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광산업 육성 계획 등이 있어 대규모 공원 조성에는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서지역은 지가, 토지 매수 용이성, 교통 접근성, 도시 균형 발전성 등의 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강서구청, 2001). 이러한 검토 결과를 가지고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원 대상지가 거론되었다.

강서지역 내에서는 현장 및 도상조사를 통하여 대규모 평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장래 토지 이용성이 우

수하고,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가가 저렴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죽림동지역(337ha), 둔치도지역(317ha), 강동동지역(398ha), 맥도지역(350ha) 등 4개소가 선정되었다. 4개소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둔치도지역과 강동동지역이 토지 구입 가능성, 기존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등의 면에서 타 지역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강서구청, 2001)<sup>2)</sup>.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원의 범위가 둔치도 전역과 그 주변인 가리새 지역, 강동동지역의 일부 공간을 포함한 구역으로 압축되었다.

### 2. 대상지 현황

최종적으로 100만평공원 대상 부지로 제안된 장소는 둔치도의 약 60만평과 아시안게임 조정·카누경기장이 포함되는 강동지구, 공유수면을 포함하는 수변지구의 약 500ha이다(그림 1). 이 제안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개략적인 유역을 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구획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곳이 공원의 대상지로서 결정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제안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대상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둔치도(약 60만평)는 지번도에 의해 대상지의 토지를 조사한 결과, 둔치도의 토지이용은 전체 조사토지의 90% 내외가 전·답인 농지이며, 대지(2.5%)를 제외하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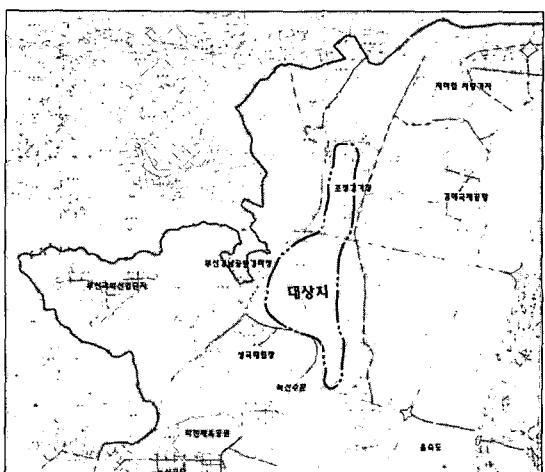


그림 1. 100만평공원의 위치 및 공원구역

방, 잡종지, 양어장 등이 적은 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둔치도의 토지 소유현황은 전체 조사 토지의 80% 이상이 사유지이며, 알개섬을 중심으로 국공유지가 15% 내외로 분포하고 있으며, 시유지는 전체 면적에 비해 적은 비율인 1.0%로 나타났다.

둔치도는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대상지가 한 눈에 인지되어지며, 향후 공원조성 시에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는 서낙동강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하천활동이 가능하며, 둔치도 진입부와 가리새 등의 소하천 등은 이 지역의 독특한 아름다운 하천경관을 연출하고 있다(그림 2).

개발제한구역인 이 지역 일대는 불법적인 음식점, 창고 등의 시설이 계속 난립되고 있다. 특히 둔치도에는 연료단지 조성을 위한 4차선 진입교량이 거의 완성 단계로서 현재는 임시로 이용되고 있으며, 향후 공원 진입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료단지 조성계획은 표류하고 있으며, 연료단지를 위해 조성된 공간은 아직 아무런 이용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어 삭막하고 불쾌한 경관으로 남아 있다(그림 3).

강동동지역에는 부산아시안게임의 조정경기장이 입지하고 있어 기존의 시설 및 여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III. 100만평공원 구상의 개요

#### 1. 공원의 가치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100만평공원은 부산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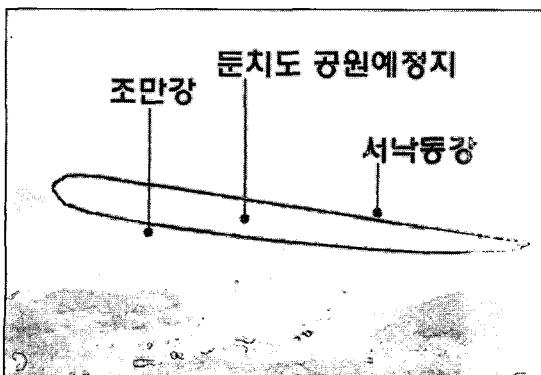


그림 2. 둔치도와 그 주변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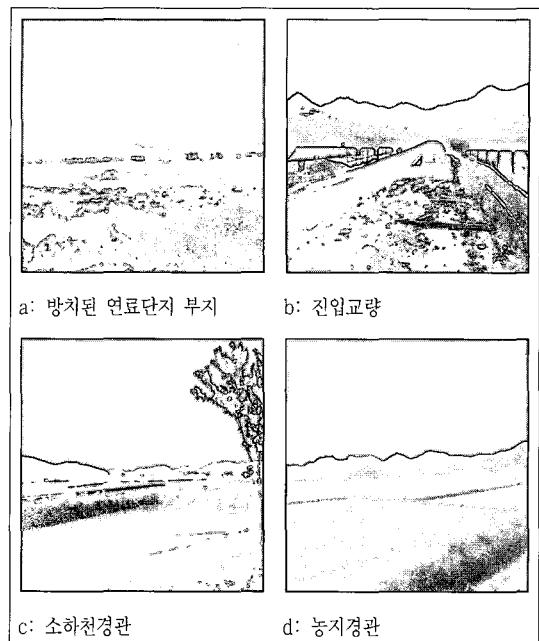


그림 3. 대상지 내부에서 조망되는 경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광역공원을 말한다. 이 공원은 도시 근교 산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산지형공원, 대규모의 녹지, 강변 고수부지와 같은 생태공원과는 개념을 달리한다. 100만평공원은 문화공간이 있고, 시민이 조성한 숲이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부산의 도시 발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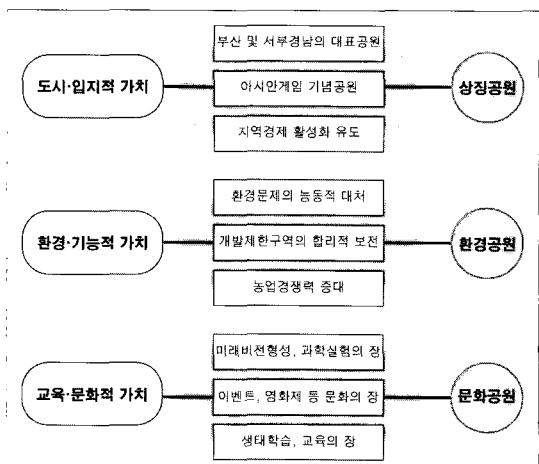


그림 4. 100만평문화공원의 가치

자료: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2002: 30.

연계되며, 이 공원이 그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다. 주민들은 100만평공원의 가치에 대해서 도시입지적 가치, 환경기능적 가치, 교육문화적 가치 등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2002).

## 2. 주민제안 추진전략 방안

100만평공원 사업제안을 시작한 초창기의 주민제안 추진전략은 표 1과 같다.

이상과 같은 초기 제안전략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조직구성, 기금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의 의견 제시 등은 초기의 구상대로 진행되어 왔지만, 대상부지 내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숲가꾸기, 농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부분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 3. 주민선택 미래모습

100만평공원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이



그림 5. 100만평공원의 미래모습을 고르고 있는 어린이들

다양하다(그림 5). 여러 차례 워크숍을 거쳐 미래공원의 모습을 자연형 공원, 농업형 공원, 문화형 공원, 레저형 공원, 스포츠형 공원, 참여·복지형 공원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형 공원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문화형 공원, 레저형 공원, 스포츠형 공원, 농업형 공원, 참여·복지형 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주민제안 도입가능 시설

표 1. 초기의 100만평공원 추진전략

| 단계별                             | 전략방향 | 내용  |
|---------------------------------|------|---|
| 전략 1<br>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체 결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단체를 만들되, 유관시민단체와 시민들로 연계</li> <li>행정의 적극지원 및 체계구성과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li> </ul>   |
| 전략 2<br>시민기금 조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지보상 등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위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전개</li> <li>“공원 1평 사기”운동을 추진, 1평에 해당되는 비용(지가)을 1구좌로 하여 기금 모금</li> <li>단계별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모금된 기금으로 연차적 부지 확보</li> </ul>   |
| 전략 3<br>시민의 숲 만들기와 가꾸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수를 희망하는 시민(특히 청소년, 어린이), 종교인들과 기업을 중심으로 시민의 숲 만들기 운동 전개</li> <li>결혼기념식수, 단생기념식수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기념식수 행행, 전 도시민에 확산</li> </ul>   |
| 전략 4<br>농민과 시민의 파트너십 형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농업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 첨단 농업화하여 유명 농업상품의 개발과 함께 이를 판매·유통할 수 있는 단지 설치</li> <li>참여농민 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시민이 이를 임대하는 형태로 상호 파트너십 형성</li> <li>임대자인 시민은 자신의 이름이 부착된 농지를 관리하고, 농민에게는 일정 비용을 지급</li> </ul> |
| 전략 5<br>공원계획 및 건설에의 시민참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계획단계에서부터 공원조성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하여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여, 의견을 계획에 반영</li> <li>세부공간별로 시민들의 제안을 받으며 시민들의 참여폭 확대</li> <li>공원건설 단계에서도 시민참여가 가능한 부분에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li> </ul>                                 |
| 전략 6<br>지속가능한 유지·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민과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생태 교육프로그램, 다양한 축제 유치</li> <li>공원의 활력제공을 위한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li> <li>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지원</li> <li>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시상(施賞)프로그램 운영</li> </ul>                                  |

자료: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2002: 52-54. 필자 재작성.

표 2. 주민들이 원하는 100만평공원의 유형

| 공원 유형     | 공원 안에 들어가는 내용                                | 참석자(인) |
|-----------|--|--------|
| 자연형 공원    | 숲, 들판, 잔디광장, 언덕, 생태연못, 갈대습지, 철새수식지, 식물원, 동물원 | 201    |
| 농업형 공원    | 벼농사 체험장, 첨단농업단지, 약초원, 야생초화원, 허브체험원           | 28     |
| 문화형 공원    |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공연장, 테마공원, 민속촌, 오페라하우스   | 111    |
| 레저형 공원    | 놀이동산, 강변유람장, 물놀이장, 강변욕장, 분수대, 놀이터호수공원, 캠핑장   | 105    |
| 스포츠형 공원   | 스포츠센터, 체육공원, 수상스포츠, 자전거도로, 승마장               | 56     |
| 참여·복지형 공원 | 자원봉사센터, 장애인복지관, 시민복지관, 실버타운                  | 21     |
|           | 합계   | 522    |

### 1) 1차적인 제안 시설

100만평공원의 토지이용방향을 살펴보면, 문화시설지구, 향토 생태숲 지구, 농업공원 지구, 하천 및 수변지구, 운동시설 지구, 양묘장 지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에 설치되는 시설은 표 3과 같다. 문화시설지구에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부산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기념시설, 문학관, 도서관, 공연장, 청소년수련장, 향토 생태숲 지구는 전체면적의 절반인 50만평의 숲을 시민들이 묘목을 심어 단계적으로 조성하며, 20년 후

완성될 시기에는 세계농업박람회 혹은 생태박람회 개최장소로도 사용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시민제안 시설

이 외에도 주민들이 100만평공원내에 제안하고 있는 공원시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 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놀이와 과학의 실험장 마련(어메니티 과학실험)
- 각 학년별 교과서에 나오는 동식물의 야외체험 학습장
- 숲으로 둘러싸인 넓은 광장 및 공연장
- 장애인도, 어린이도, 노인도 맘껏 걸을 수 있는 숲과 문화가 있는 평지 산책길
- 세계적인 농업박람회, 생태박람회, 오페라, 째즈 페스티벌 유치
-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초원
- 조영창의 철로광장
-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기념 시설: 아시안게임 기념광장, 아시안 가든, 월드컵 기념광장, 프롬나드
- 숲 및 자연 시설: 시민의 숲, 가족의 숲, 수목원, 약초원, 야생식물원, 허브원, 수생식물원, 조류관찰원, 꽃의 광장
- 체육 및 청소년 시설: 잔디운동장, 운동장, 만남의 광장, 잔디광장, 청소년 시설관, 청소년 학습원

표 3. 공원내의 제안 시설

| 지구별        | 도입개념   | 도입시설  |
|------------|--|---|
| 문화시설 지구    |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폐적인 공원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부산공원문화의 메카로 조성                | 문화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문화회관, 음악홀, 청소년수련장, 각종 특수박물관, 기념관, 놀이박물관, 생태박물관, 각종 편익시설, 레스토랑, 교육시설, 회의실, 유스호스텔 등 |
| 향토 생태숲 지구  | 대규모의 숲을 조성하여 항공기 진입 및 고속도로 진입시 부산의 녹색도시 이미지 부각               | 수생지, 습지, 습초지, 하반림 등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향토적인 고유의 생태숲<br>부산의 초·중고등학생 등이 자연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수목원, 생태학습원           |
| 농업공원 지구    | 주변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농업공원의 개념도입                              | 주말농장, 가공식품체험의 장, 농산물의 유통 판매장<br>농업박물관, 시민농장, 관광농원, 선진영농 단지, 약초박물관                                     |
| 하천 및 수변 지구 | 하천생태계 형성, 정화식물의 자정작용에 의한 수질정화 도모, 수변공간을 활용한 수변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 활용 | 수변(수상)위락시설, 수변교통시설, 수로, 수변스포츠시설, 수변생태복원 시설  |
| 양묘장 지구     | 도시의 녹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대형 양묘장 조성                        | 한시적인 양묘장, 수목은행  |

자료: 부산광역시, 1999: 210-211. 필자 재작성.

이상의 시설들은 공원운동 초기에 100만평공원에 도입 가능한 시설로서 제안되었으나, 이는 단지 시민들에게 완성시의 공원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에 불과하며, 향후 공원시설 결정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의 방향을 정리해 보면, 시민들이 스스로 조성하여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 평지숲이 있으며, 패적한 분위기의 휴식공간이 있으며, 노인도, 어린이도, 장애인도 불편 없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광장,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도시 내에서 자연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자연체험, 문화체험 학습의 장이 있는 공원을 말한다. 즉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원, 넉넉한 쉼터, 넓은 초원이 있는 곳, 문화와 예술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100만평문화공간이다.

## 5. 제안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

100만평공원의 가치와 미래 모습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100만평공원이 제안된 초기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들이 이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100만평공원 측이 이에 대응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멀리 있는 대공원보다는 집 근처의 소공원이 더 필요'에 대한 대응

집 가까운 곳에 소공원은 물론 당장 필요하다. 그러나 400만 인구의 대도시라면 소공원 이외에도 모든 부산 시민들의 여가, 휴식을 담을 수 있는 큰 공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규모 면적이 필요한 이유는 공원 내에 넉넉한 학습체험공간, 다양한 문화공간, 운동장, 평지숲,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큰 규모의 공연이 가능한 넓은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대안의 선택이 아니라 병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의 부산에서는 이러한 공연, 문화공간, 공원 체험이 불가능하다. 관람객이 동시에 100만명이 모여 HOT, 서태지, 락음악 공연쯤은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큰 공원은 도시의 골격으로, 부산의 미래구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 2) '도심에서 멀어서 이용하기 불편'에 대한 대응

100만평규모의 공원이라면 도심 내에 조성한다는 것

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곳은 부산의 동부지역 일부 거주민에게는 약간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부산의 광역적인 계획개념에서 본다면 결코 도심에서 멀고 외딴 곳이 아니라, 이곳이 앞으로는 광역부산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곳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3) '새로운 공원조성보다는 기존 이전 적지의 공원화 가 더 시급'에 대한 대응

군 부대나 공장 이전 적지의 공원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할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100만평공원의 안은 선택적인 대안이 아니라 별개의 과제이다. 100만평공원의 대안이 될 만한, 현재 아시안게임의 기념공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 이전적지가 나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당장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도 같다.

### 4) '자연인 농지인 인공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환경파괴'에 대한 대응

이곳은 현재 농지로서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계적인 녹지보전을 위한 공원구역을 설정하여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난개발이 불가피한 장소이다. 현재는 자연의 농지라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피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보전적인 선택이다. 이제는 산지가 아닌 평지에도 공장보다는 공원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원은 인공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된 공간이다.

### 5) '공원지정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인 피해'에 대한 대응

기존의 공원지정구역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원 조성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며, 거주민들은 100만평 공원 근처의 이주대책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광범위한 경제적인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 6) '시가 해야 하는 사업을 왜 주민이 나서는가'에 대한 대응

공원조성 사업은 당연히 시가 추진해야 하는데 행정

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앞장 서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만일 시민이 나서서 해나가지 않는다면, 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안은 향후 부산발전의 대안이며, 2002아시안게임을 눈앞에 둔 지금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이다. 만일 지금 때를 놓치게 된다면 영원히 공원도시를 향한 시민의 꿈이 사라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주민들이 열심히 해 나간다면 행정도 언젠가는 움직일 것이다.

100만평공원 제안에 대해서 초기에 이러한 반대주장이 있었던 것은 100만평공원 제안 내용이 그 면적에 있어서 방대하고, 그 추진내용이 단숨에 받아들이기에는 과격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많은 주민들은 100만평공원을 마음 속으로부터 이해하게 되었고, 참가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 IV. 주민참여활동의 전개

1999년 부산공원녹지마스터플랜을 통하여 100만평공원운동이 제안된 이래, 7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것은 시기상조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참여경로, 운동의 흐름, 발전과정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태동기, 맹아기,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보았다.

100만평공원운동의 주민참여 전개과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참여활동의 추진조직

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림 6과 같이 「2002아시안게임부산시민행동연합(이하 '시민행동연합')」 도시환경위원회, 100만평시민문화공원추진본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의 3단계로 변화, 발전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행동연합 내부의 작은 규모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주변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점차적으로 조직의 체계를 갖추어 나가 현재에는 60여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 1. 태동기(1999~2000. 2)

본 연구에서는 100만평공원의 발상이 구상되고, 일반에게 알려지게 된 시기를 태동기로 보고자 한다.

#### 1) 부산공원녹지마스터플랜을 통한 제안

이 발상이 구상된 것은 「부산공원녹지마스터플랜」(부산광역시, 1999)이 계획 중이던 1998년도 초기였으며, 계획구상안으로 정리, 발표된 것은 1999년 부산시 위탁연구과제로서 도시발전연구소가 수행한 부산공원 녹지마스터플랜용역 최종보고서이다.<sup>3)</sup> 이 보고를 통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조성 제안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이 제안에 대해 부산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하여 김승환은 1999년 12월 아시안게임시민단체 결성을 위한 준비회의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 환경분야의 시민적 접근"이란 주제 하에 주민참여에 의한 「아시안게임기념공원」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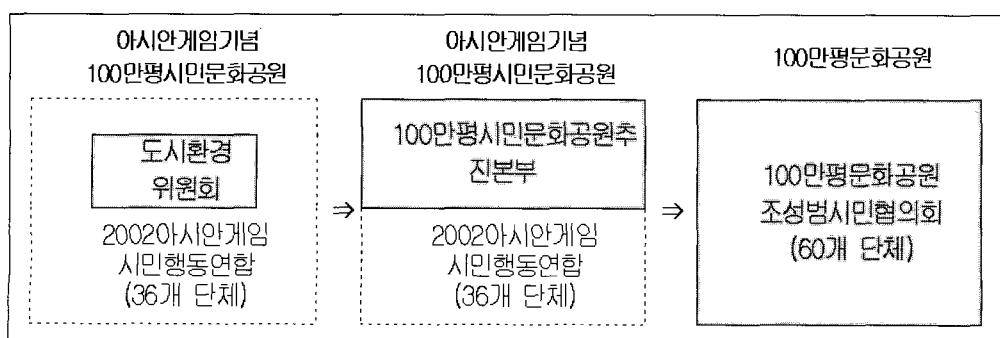


그림 6. 100만평공원운동 추진조직의 단계적 발전

2) 포럼을 통한 주민참여 공원운동의 공식제안  
부산시의 냉담한 반응 속에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럼신사고의 2000년 뉴밀레니엄의 첫 포럼에서 “새천년 부산에 100만평시민문화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제안은 100만평공원구상안을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최초의 발표라 할 수 있다.

이 포럼을 통하여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폭넓게 참석하였으며, 이 발표내용은 부산의 각종 일간지, TV, 라디오 등 여러 방송매체에서 주요 뉴스로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론화되기 시작하였고, 일반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실현 가능성, 찬반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후 초청 강연, 공식회의 제안 등을 통하여 100만평공원의 구상안이 점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 3) 「2002아시안게임부산시민행동연합」 도시환경위원회의 구성

2000년 2월에 2002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00만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그 뜻을 모으고, 의지를 실천하여 부산아시안게임의 시민지원을 통해 부산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36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2아시안게임부산시민행동연합」이 한시적으로 결성되었다. 시민행동연합은 주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의사회, 약사회, 변호사회 등의 직능단체, 불교신자회, 천주교부산교구평신자회 등의 종교단체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으며, 실행조직은 여성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보영상위원회, 국제NGO위원회, 문화학술위원회, 운영협력위원회, 시민체육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부산아시안게임개최시의 도시환경개선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아시안게임기념공원 조성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전담하여 수행하여 왔다.

본 위원회는 초기에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규모의 빈약성, 100만평공원 홍보를 진행하기 위한 대외적인 이미지의 형성, 비용 확보 등의 면에서 구

체적인 추진상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 단계에서 100만평공원은 아직 그 의의나 당위성 등이 일반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상태이지만, 시민행동연합을 배경으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면서 조금씩 시민과 시민단체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의 공원 명칭은 「아시안게임기념100만평시민문화공원」이다.

### 2. 맹아기(2000. 2~2001. 5)

맹아기는 태동기의 제안과정을 거쳐 「100만평시민문화공원추진본부(이하 ‘공원추진본부’」가 결성되고,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100만평공원운동의 본격적인 조직체라 할 수 있는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창립되기 전까지의 준비단계를 말한다.

#### 1) 「100만평시민문화공원추진본부」의 결성과 주민참여

이후 3차례 걸친 100만평시민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포럼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 결과, 본격적인 공원조성운동을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0년 7월 20일 시민행동연합 내의 조직으로서 도시발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단법인 문화도시부산네트워크, 부산경실련,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YWCA, 서부산시민협의회, 포럼신사고 등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100만평시민문화공원추진본부」가 결성되었다.<sup>4)</sup> 이를 계기로 100만평공원운동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점의 공원명칭은 아직 「아시안게임기념 100만평시민문화공원」이다.

초기단계의 공원추진본부는 시민이 주축이 되어 향후 부산시와 함께 100만평시민문화공원 조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사안에 따라서는 시에 협력,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부산시의 공원에 대한 인식, 행정적인 여건으로는 부산시가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운동의 초기에는 부산시의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시민들 주도에 의해 공원운동이 추진되었다. 시민행동연합은 회장단을 중심으로 부산시장을 비롯해서 신문방송사를 공식방문하면서 100만평공원제안을 문서로서 전달하고,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한편으로는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운영위원회(2000. 3. 15),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2000. 3. 21)<sup>5)</sup>의 운영위원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운영위원회(2000. 4. 19)에서 100만평공원 안건이 협력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100만 평문화공원 조성안을 부산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시장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2000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3차례에 걸쳐 'AG기념 시민대공원 구상과 새천년 부산시 공원녹지정책의 과제', '부산미래구상과 AG기념 시민대공원 조성', '서부산권 미래구상과 AG기념시민대공원조성'을 주제로 「100만평시민공원조성을 위한 포럼」(100만평시민문화공원추진본부, 도시발전연구소, 2000)이 진행되었다. 본 포럼에는 폭넓은 시민층이 참가하여 100만평공원운동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었고, 여기서 100만평공원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및 조직적인 활동과 이의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동년 12월 부산MBC TV방송국에서 100만평공원제안은 2001년도의 10대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집방송으로 80분간 생방송(2001. 2. 8)이 방영되는 등 100만평공원운동은 일반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였다. 2001년 2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의 정기총회에서 100만평공원제안이 4대 중점사업으로 확정되었고, 또한 이 운동이 관을 포함한 시민운동 차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2001년도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정기총회에서 신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2001년도 상반기에는 100만평공원에 관한 사항들이 일본의 일본내셔널트러스트 등의 관련단체에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일본의 재일동포 신문인 민단신문을 비롯해 동경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에도 100만평공원운동이 소개되었다.

## 2) 서명운동을 통한 주민참여

공원추진본부는 100만평공원운동을 시민에게 확산시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00만평공원조성을 위한 100만명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100만명서명운동은 무엇보다도 일반시민에게 다가가기 위

한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명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 확보, 행정처리 등 행정에 이해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압력수단이며, 적극적인 의사전달 수단이기도 하다. 이 서명운동은 시작한 이래 이듬해 2월까지 1개의 민간단체만의 순수한 힘으로 단기간에 32만명의 서명을 받는 쾌거를 이루하였다.<sup>6)</sup> 서명운동의 참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서명이 중요시되었다.<sup>7)</sup> 참여방법은 전화에 의한 서명을 비롯하여 내사랑부산운동 등 각 참여 시민단체를 통하여 서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일요일에도 남포동, 서면의 중심가나 어린이대공원, 영광도서, 동보서적 등 도심에 서명대를 만들어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맹아기의 시기는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공원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고, 많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어 100만평 공원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원추진본부는 운동을 추진하는 초기과정에서 100만평공원조성의 기틀을 만들었지만, 시민행동연합 내의 조직이라는 조직체계 때문에 부산시의 참여 촉구, 기업 참여, 범시민적인 기금 모금을 추진하는 데 또 다른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에 2001년 2월 추진본부의 운영위원회는 보다 범시민적인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추진본부의 발전적인 해체를 결의하고, 100만평문화공원조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주민참여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3. 1차 성장기(2001. 5~2005. 11)

본 연구에서는 100만평공원운동의 본격적인 조직체라 할 수 있는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의 창립<sup>8)</sup> 이후, 토지 매입, 일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기증 및 협약 이전까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시기를 1차 성장기로 보고자 한다.

### 1)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의 결성

2001년 5월 9일 40여개의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

협')」가 발족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100만평공원운동은 부산아시안게임만의 기념공원에 그치지 않고, 21세기를 향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미래공원의 실현을 향한 큰 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이 단계부터 공원의 정식명칭은 「100만평문화공원」으로 불리게 된다.

시민협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기존의 아시안게임기념100만평시민문화공원의 추진을 진행해왔던 100만평문화공원시민추진본부, 부산시가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6개 종단이 참여하고 있는 부산중교인평화회의가 주축이 되며, 여기서 추대된 대표자 3인이 상임공동의장직을 맡게 되었다. 부축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여성단체협의회(여성계), 부산예술인총연합회(예술계), 부산초등학교교장회(교육계), 부산체육회(체육계), 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애인단체), 부산시민단체연합회(시민단체), 부산상공회의소(상공계), 서부산시민협의회(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되고, 각 분야에서 추천한 8인이 공동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와 같이 100만평공원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구성은 부산의 관련단체들이 포괄적으로 참가하는 범시민적인 형태를 갖추어 출범하게 되었다.

2001년 9월에 범시민협은 부산시비영리단체로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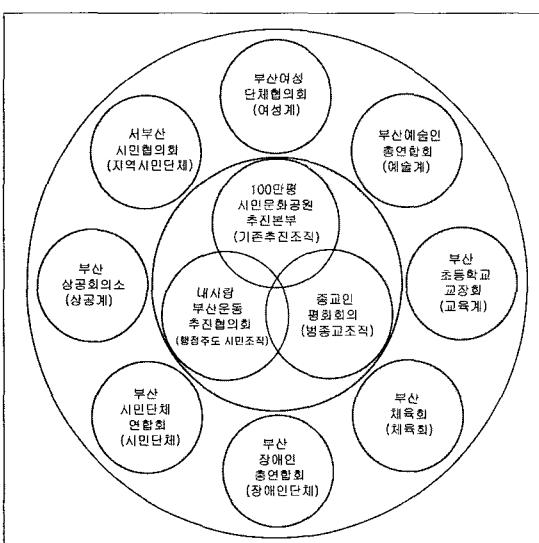


그림 7.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의 조직구성  
자료: 金承煥, 村橋克彦, 2001: 19.

록하였으며, 12월 9일에는 사단법인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는 포럼신사고, 문화도시네트워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 YMCA, 부산 YWCA 등의 단체<sup>9)</sup>가 본 운동의 참여단체로 동참하고 있다. 범시민협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협의회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이다. 이 자원봉사를 총괄하여 그린볼untee(Green Volunteers)라 칭하고, 이는 다시 자원봉사리더그룹인 그린코디네이터(Green Coordinator), 학생 참여자인 GPM(Grand Park Maker), 풀꽃가드닝, 선생님 참여그룹인 그린 샘, 퇴직자 봉사그룹인 그린실버(Green Silver)로 세분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주민참여에 의한 기금모금 시스템을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참여단체는 당연직으로 단체의 장 혹은 실무책임자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운영위원은 자신의 소속단체를 배경으로 하여 기금을 모금하도록 하고 있다. 범시민협이 구성됨으로써 100만평공원조성에 찬동하는 많은 시민, 관계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지는 등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본 협의회 체제에서는 부산시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위한 업무협조가 미미하고, 행정참여부분에 공백이 생기는 등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향후 민관파트너십 형성에 의한 그린 트러스트의 창립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2) 홍보 및 출판을 통한 주민참여

범시민협의회는 일반 시민들에게 100만평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의미를 알리고 기금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문, 뉴스스레터, 각종 보고서, 리플렛 등 각종 출판물 및 홍보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그 동안에 발간된 홍보자료 및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 소식지: 「100만평문화공원」(계간)
- 신문: 「1000000 신문」(비정기)
- 각종 보고서 및 출판물: 「아시안게임기념 100만평문화공원조성을 시민의 힘으로」(2000), 「부산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100만평문화공원」(2001), 「100만평 시민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2001), 「100만평 공원 이야기」(2002), 「100만평문화공원국제학생설계경기대회 기념국제심포지엄 자료집」(2002), 「100만평문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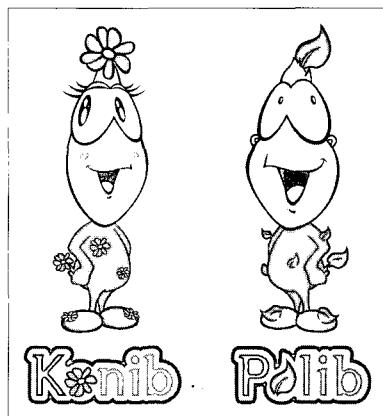


그림 8. 100만평공원 캐릭터: 꽃잎이와 풀잎이

제2회 기념심포지엄 자료집, -잃어버린 연지찾기- (2003), 「100만평문화공원+수요포럼」(2004), 「서낙동강어메니티환경조사 및 서낙동강어메니티 이용지도만들기」(2005)

#### · 각종 리플렛 10여종

이상의 홍보물의 제작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고, 기금을 모아가야 하는 범시민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각 사안마다 기업 및 개인의 참여에 의한 기부금으로 충당하거나 혹은 공모사업과 병행하여 홍보자료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 3) 캐릭터 및 관련 문화상품 제작을 통한 주민참여

100만평공원의 상징적인 캐릭터로 100만평공원 '꽃잎이'와 '풀잎이'로 공원 박사인 '닥터M'이 제작되었다. 범시민협은 2003년 8월 풀잎이와 꽃잎이를 상표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100만평공원의 공식적인 캐릭터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 범시민협은 이 캐릭터를 일반에게 알리고, 100만평공원을 생활 속에서 체감시키기 위하여 캐릭터를 이용한 연하장, 카드, 티셔츠, 뜻자리 등 문화상품을 만들어 보급하고, 일부 수익금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의한 수익은 미미한 실정이지만, 이와 같은 캐릭터를 이용한 문화상품의 보급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주민의 참여활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 4) 기금모금 및 토지매입을 통한 주민참여

#### (1) 기금모금

100만평공원운동의 주민참여 활동 중 주요 부분 중의 하나가 회원 확대 및 기금 모금이다. 회원 확대는 기금으로 연결되며, 또한 기금 모금에 참여한 기업 및 회원은 본 공원운동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형태를 보여 왔다. 범시민협의 기금 모금 참여를 위한 유형 및 내용은 표 4와 같다.

#### (2) 토지 매입

범시민협의 운영위원회(2000. 10)에서는 공원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부산시의 공원조성 조기계획을 독려하기 위하여 공원 부지 일부 지역을 매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공원1평갓기운동을 비롯하여 기업참여에 의한 기금모금 등 다양한 기금모금 활동을 통하여 약 4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을 토대로 부산시 강서구 일원의 약 13,400평의 담14필지를 매입하였고, 2002년 7월 15일 잔금지불을 완료하였다.<sup>17)</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시민협이 추진해온 주민참여 확대의 방법, 기금모금 방법 등은 타 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추진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민참여 활동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 5) 100+100플랜을 통한 주민참여

표 4. 100만평공원 기금모금 방법

| 유형      | 종류   | 대상기업    |
|---------|--|---------|
| 후 원     | 풀씨회원 <sup>10)</sup> (월 2,000원 이상)                      |         |
|         | 풀회원(1만원~5만원)   |         |
|         | 꽃회원(5만원~10만원)  |         |
|         | 나무회원(10만원~50만원)  |         |
|         | 숲회원(50만원~100만원)  |         |
|         | 강회원(100만원~1,000만원)                                     |         |
| 기업 및 단체 | 하늘회원(1,000만원 이상)                                       |         |
|         | 「MillionPark 국민카드」기금 <sup>11)</sup>                    | 국민카드    |
|         | 「Green Paradise」기금 <sup>12)</sup>                      | 파라다이스   |
|         | 「0.1%기금」 <sup>13)</sup>                                | 호텔 부산   |
| 단체      | 「밀리언 그린 레스토랑(Million Green Restaurant)」 <sup>14)</sup> | 4개 기업   |
|         | 「밀리언 그린 허스피탈(Million Green Hospital)」 <sup>15)</sup>   | 6개 레스토랑 |
|         |  | 3개 병원   |
| 적립식     | 출입(유치원, 초, 중, 고)반 기금 <sup>16)</sup>                    |         |

### (1) 쌈지공원 조성

100만평공원 운동의 초기에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징적인 100만평공원운동이 주된 활동 내용이었지만, 2003년도부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00만평공원과 함께 시 전역에 시민의 힘으로 공원을 조성해 가자는 「100+100플랜」<sup>18)</sup>으로 발전시킨 공원문화운동 전략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김승환, 2002). 범시민협과 도시발전연구소는 「100+100플랜」 전략의 일환으로서, 산관학 파트너십에 의해 매년 도심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왔다. 그 동안에 조성된 쌈지공원은 다음과 같다.

- 과정동 회화나무 쌈지공원(2002, 부산시 사하구 과정로타리)
- 문현동 육교 및 쉼터 조성(2003, 부산시 남구 문현동 고개 초입)
- 사상구 버스정거장 주변 쌈지공원(2004,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 동구 지하철 출입구 쌈지공원(2005, 부산시 동구 초량동): 진행 중

일정한 예산 없이 시민의 힘만으로 도심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만, 시민단체와 기업, 전문가가 힘을 모아 조성비용을 분담한다는 방침 하에 추진하여 왔다. 이는 주민이 스스로 쌈지공원을 만들어가면서 도심환경의 변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간다는 차원에서 100만평공원운동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2) 「잔디가 있는 푸른 광복로」행사

2004년도에는 「100+100플랜」의 또 다른 전략으로 삭막한 도심가로의 아스팔트공간을 잔디, 녹지로 바꾸어 새로운 녹색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보자는 잔디가 있는 푸른 광복로운동을 성공적으로 개최, 녹색도시만들기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졌다. 이어서 2005년도 5월초에 개최된 「제2회 잔디가 있는 푸른 광복로」행사는, 자동차가 없어지고 잔디길로 변한 광복로를 체험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녹색문화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 공모전, 포럼 및 국제적 교류를 통한 주민참여

100만평공원운동은 내부적으로는 회원 확보, 기금 모금, 홍보 활동 이외에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조성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 공모전, 심포지엄 등 학술적 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내셔널트러스트, 요코하마 시민활동지원센터, 나고야 세계박람회시민위원회, 전국도시 후쿠오카녹화페어, 중국항주시 등의 초청에 의해 100만평공원운동사례가 소개되었다.

#### (1) 공모전

##### · 국제학생설계 공모전

범시민협 주관 하에 한국조경학회, 일본조원학회, 중국풍경원림학회 등 한중일 3개 학회가 주최하는 100만평문화공원 국제학생설계 공모전의 국제협정이 체결(2001. 10)되었다. 주제는 「100만평문화공원」으로 한중일 조경 또는 디자인 관련 학생들로부터 30여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 · 제2회 학생설계 공모전

부산의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미하야리아 부대의 이전적지(약 16만평)를 대상지로 하여, 2003년 5월 「잃어버린 연지를 찾아서」라는 주제하에 국내 공모전이 실시되었다. 조경, 건축, 도시, 원예, 환경, 디자인 등 이와 관련된 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들로부터 66개 작품이 제출되었다.

#### (2) 포럼, 심포지엄 등

##### · 한국청년회의소 「청년포럼」(2001. 9)

주제: 100만평문화공원조성을 위한 부산시민의식 고취 및 역할(김성국)

##### · 무라하시 가즈히코(村橋克彦: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 초청강연(2001. 9)

주제: 시민에 의한 공원조성과 관리사례, 요코하마 마이오카 공원

##### · 정기총회 기념심포지엄(2002. 2)

주제: 부산광역권도시계획과 서부산권 발전방향(윤철현)

##### · 부산, 동경, 요코하마 시민교류 및 식수대회 기념세미나(2002. 3)

주제: 100만평공원과 요코하마 마이오카공원의 교류  
와 시민활동

- 국제학생설계 공모전 기념국제심포지엄(2002. 10)

주제: 도시 · 공원 · 미래, 21C도시발전과 공원

- 기조강연: 21C도시발전패러다임과 도시공원(임승빈)
- 발제 1: 미국공원녹지 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장 병관)
- 발제 2: 21C를 향한 일본의 새로운 공원녹지 조성 방향과 과제(田代順好)
- 발제 3: 부산공원 녹지 조성의 과제와 100만평문화 공원의 미래상(김승환)

- 제2회 100만평문화공원 기념심포지엄(2003. 5)

주제: 하야리아 미군부대 이전적지 활용 방안(김영표,  
조우)

- 100만평문화공원 수요포럼(2003. 10~11)
- 제1회: 도시에 어떠한 공원이 필요한가, 특히 큰 공원이 왜 필요한가?(장병관)
- 제2회: 100만평문화공원, 어떤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강현우)
- 제3회: 100만평문화공원, 과연 시민의 힘으로 조성 할 수 있을 것인가? (김해창)
- 제4회: 100만평문화공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제도적 접근(변문기)
- 제5회: 100만평문화공원, 실현을 위한 시민대토론 (강동진)

### (3) 국제적 교류 및 활동

- 월간 공원녹지건설산업(公園綠地建設產業)에 부산의 녹지조성운동, 「100만평공원과 온천천 콘크리트 제거 운동」기고(2000. 12)
- 일본어메니티연구소보에 「한국부산의 시민참가에 의 한 100만평시민문화공원 조성운동」 게재(2001. 8)
- 中國杭州環境社會 環境教育 西湖FM國際研討會論文集(中國環境科學出版社)에서 「한국부산의 100만평시민문화공원운동과 항주서호 Field Museum구상」 게재(2001. 10)
- 일본내셔널트러스트 초청으로 오이타현 전국대회에서 「부산100만평공원조성운동사례」 발표(2001. 10)
- 중국 항주시 초청으로 항주 서호문화유산 지정을 위

한 심포지엄에서 「부산100만평문화공원과 항주시 서호필드무지엄」 발표(2001. 11)

- 일본요코하마 시민활동지원센터 초청으로 「100만평 공원의 사례」 발표(2002. 1)
  - “일본어메니티 식수단” 10여명이 100만평문화공원 부지 내에 기념식수를 위하여 대상지 방문, 참가단 전원 “공원1평기금”회원으로 가입(2002. 4)
  - 일본요코하마 시민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들이 100만 평공원예정부지 방문, 교류(2002. 11)
  - 일본나고야 세계박람회 시민위원회 초청으로 주민참 여운동 한국사례 「100만평문화공원」 발표(2003. 11)
  - 한일하천환경 어메니티 워크숍에서 100만평공원에 관한 집중논의 및 현지답사(2004. 7)
  - 제2회 한일하천환경 어메니티 워크숍에서 서낙동강과 연계한 100만평공원에 관한 집중논의, 20여명의 외국인 참가자 전원 회원 가입(2005. 8)
  - 일본 전국 도시 후쿠오카녹화페어 초청으로 「한국의 100만평문화공원운동사례」 발표(2005. 11)
- 이상의 공모전, 포럼, 국제적 교류 활동을 통하여 100만평공원은 국내외적인 대외홍보와 함께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장래의 공원운동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원동력을 축적하여 나갔다.

### 7) 기타 활동을 통한 주민참여

범시민협은 이상의 활동 이외에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동을 인정받아, 부산시, PSB, 부산MBC 방송사로부터 수상하는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조사, 워크숍, 연구기획 사업을 추진하였다.

#### (1) 활동 및 수상

- 환경운동연합 강연 「왜 100만평시민대공원을 조성해야 하는가」 (2002. 4)
- “부산경제정의”(부산경실련 발행)에 「부산에 아시안게임기념 100만평시민문화공원을 조성하자」 기고 (2002. 5)
- 내셔널트러스트운동과 협력하며, 25일 우리나라 내셔

## 네트워스트운동 제1회 전국대회에서 100만평문화공원 사례 발표(2002. 1)

- 강서구청장 후보 초청토론회 「둔치도 100만평문화공원」 발표(2002. 5)
  - 제4회 영호남건설기술 심포지움에서 「새천년부산도 시발전의 새모델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운동-」 발표(2002. 10)
  - 내셔널트러스트 정기워크숍에서 100만평공원 사례 발표(2002. 12)
  - 내사랑부산운동추진범시민협의회 “공로상” 수상(2003. 1)
  - 한국공원휴양학회에서 「21세기 시민참여모델 100만 평문화공원」 발표(2003. 4)
  -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색환경상, 녹색단체 부문” 수상(2003. 6)
  - 푸른부산가꾸기 사업, 각 구별 담장허물기, 입면녹화, 옥상녹화 사례 모니터링(2003. 8)
  - PSB부산방송 “문화대상, 사회봉사부문” 수상(2004. 5)
  - 부산MBC “부산문화대상, 지역사회부문” 수상(2005. 4)
  - 제4회 전국 강의날대회 “100만평공원만들자 상” 수상(2005, 8)

## (2) 조사 및 공모사업

- 벼농사 체험학습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2002)
  - 청소년들의 방과 후 동아리 활동-벼농사 학습을 중심  
으로-(녹색도시부산21, 2002)
  - 부산 공원이용환경조사 및 공원이용지도 제작(녹색  
도시부산21, 2003)
  - 아름다운 공원만들기 문화시민운동-부산의 공원알기,  
가꾸기, 즐기기, 그리고 공원놀이 방법개발-(부산광  
역시 자치행정과, 2003)
  - 낙동강사랑+낙동강 체험 어린이청소년 미술대회(낙  
동강유역환경청, 2004: 2005)
  - 어메니티거점 100만평공원만들기 시민대탐사 워크숍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2004)
  - 인도되찾기(내사랑부산운동범시민협의회, 2004: 2005)
  - 공원문화운동(녹색도시부산21, 2004: 2005)
  - 서낙동강 어메니티 환경조사 및 서낙동강 어메니티

이용지도 만들기(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2005)

#### 4. 2차 성장기(2005. 11 이후)

2차 성장기는 2005년 11월 9일 100만평 공원이 1차 성장기의 다양한 활동에 이어 시민의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시에 기부하고 시와의 상호협조 협약을 이끌어 낸 협약식부터를 말한다. 2차 성장기의 의미는 그동안 행정이 참여를 미루어오다가, 드디어 시민들이 주장해 왔던 100만평공원운동에 부분적이나마 동의했고 향후 본격적인 행보를 내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9. 어메니티거점 100만평공원만들기 시민대탐사 워크숍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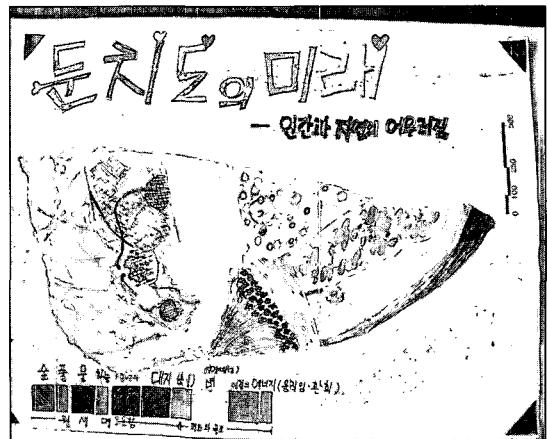


그림 10. 서낙동강 어메니티 환경조사 이용 지도 만들기(2005)

100만평공원측은 기금으로 매입한 공원부지 7,700여평(약 20억원 추정)을 부산시에 기부할 것을 제안하였고, 부산시는 여기에 추가로 7,3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첫 단계로 15,000평( $50,000m^2$ )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상호 협약하였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면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100만평의 1.5%에 불과하지만, 행정이 시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시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100만평 공원운동은 새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이 4번째 단계인 2차 성장기에서 향후 공원운동이 어떤 행보로 추진할 것인가는 지금부터의 과제이지만 공원계획, 시공에 있어서의 시민참여, 나아가 보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이 제안하고 추진해온 100만평문화공원의 생성 배경 및 과정, 주민제안 내용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주민참여활동의 전개 과정을 맹아기, 태동기, 1차 성장기, 2차 성장기의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100만평공원 주민참여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범시민적 참여로 구성된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의 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100만평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의 제안이 가능해졌고, 나아가 이를 주민참여 활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100만평공원운동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원을 물려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둘째, 100만평공원운동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협의회의 각종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린 블루티어의 다양한 자원봉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범시민협이 추진해온 주민참여 확대의 방법, 기금모금의 방법 등을 타 운동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추진력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 주민참여활동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셋째, 이러한 주민참여활동의 토대 속에서 100만평 공원측은 기금으로 매입한 공원부지 7,700여평을 부산시에 기부하면서, 이 운동에 무관심하였던 부산시로 하여금 15,000평( $50,000m^2$ )의 공원조성 협약을 이끌어 낸 점이다. 이번 협약의 의미는 100만평공원의 면적의 관점에서 본다면 1.5%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시행을 미루어오던 부산시가 시민들이 주장해 왔던 100만평공원 운동에 부분적이나마 동의함으로써, 100만평공원조성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넷째, 100만평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은 일종의 내셔널트러스트형 운동이지만, 기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금조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보전해야 할 즉 빼어난 자연은 아니지만 이곳이 타 용도로 개발됨을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공원으로 조성해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간다는 점은 주민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운동의 새로운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공원운동과 같은 활발한 주민참여활동을 통하여 1) 공원문화운동의 NGO운동으로의 정착, 2)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대규모 공원조성의 가능성, 3) 공원조성을 통하여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프론티어공원(frontier park)의 모델 제시 등과 같은 가능성의 부분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 공원부지의 확보, 추가 도시계획 공원 지정, 주민참여의 지속적인 확대, 민관 파트너십의 공조체계 확립을 위한 그린 트러스트의 설립 등의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주 1. 이와 같은 대상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초기에 부산시는 대상부지가 시민들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었고, 부산시의 도시 계획 등 공식적인 절차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 2. 이 결과는 개략적인 조사를 토대로 하여 대상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추후 세부적인 조사·분석과 주민들의 개발 의사 등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여야 함이 과제로 남아있다. 단, 이 과정에는 부산시의 의견으로서, 둔치 도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제안도 참고로 하였으며, 지역단체인 서부산시민협의회의 의견도 참고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험축되어 있다.

주 3. 당시 100만평공원이 제안되었으나, 자문회의와 부산시는 이 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게 됨으로서, 100만평공원 구상 제안은 일고의 가치없는 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후 제안자는

- 이 공원제안 내용을 공론화시켜 일반시민에게 알리고 행정을 설득시켜 나간다는 구상 하에, 공식강연, 공식석상마다 100만평공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하였다.
- 주 4. 논의 과정에서 본 공원추진본부를 시민행동연합의 내부 조직으로 할 것인지, 혹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내부 조직으로 구성하면서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주 5. 이 단체는 부산시장과 민간대표가 공동회장을 맡는 행정 주도형 지역살리기형 조직으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아직까지 행정에서 100만평공원 운동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이 협의체의 논의는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 이 단체의 민간측 대표는 향후 100만평공원 협의회의 상임공동의장직을 맡게 된다.
- 주 6. 100만평시민문화공원조성 100만명 서명운동은 밑에서부터의 서명운동으로,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부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미래의 세대들에게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견줄 수 있는 평지숲과 넉넉한 녹지와 문화공간이 있는 공원을 물려주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협의회 창립총회시에 이 32만명의 서명지가 부산시장에게 전달되었으며, 현재 부산시가 보관중이다.
- 주 7. 어린이나 학생들의 서명지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첫 서명이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커다란 힘이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갖자'는 문구를 넣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 주 8. 창립시 준비위원회는 여러 시민단체의 대표자와 실무책임자로 구성되었으며, 창립준비 과정에서 부산시장, 부시장, 부산시 의회의장,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 MBC, PSB TV방송국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100만평공원조성에 대한 부산시와 시의회, 신문방송의 협력요청, 공원조성에 대한 실무 검토 등을 요청하였다.
- 주 9. 100만평공원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국제로타리제 3660지구, 국제신문, 국제와이즈멘, 기러기문화원, 기회의학습,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도시발전연구소, 동아대학교, 동아대학교조경학과총동문회, 대한민국팔각회, 맑고푸른시민연대, 문화도시네트워크, 부산민학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시체육회, 부산광역시초등학교교장회,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일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부산 사회복지협의회, 부산청년연합회, 부산여성경제인연합회, 부산 녹색연합,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부산민학회,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을가꾸는모임, KBS부산총국, 부산MBC, PSB 부산방송, 부산종교인대학아카데미, 부산홍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부산시사회체육센터, 부산청년불자자연학회, 부산 청년희의소,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 서부산시민협의회, 선불교 부산경남교구, 선불교영풍도원, 어메니티과학교육연구회, 연제 공동체, 온천천살리기네트워크, 우리아이보육을걱정하는모임, 월간환경과조경, 인제대학교 조경21세기를위한모임,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한국에총부산시지회, 홍익문화운동연합, 한국공원휴양학회, (사)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학회영남지회, 환경을생각하는부산교사모임, 포럼신사고, 하야리아부지시민공원추진범시민운동본부, (사)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문화연합 등이다.
- 주 10. 풀씨회원이란 기초회원으로, 100만평공원이 조성되기까지 한 알의 풀씨회원들이 많이 모인다면 공원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많은 시민들을 회원으로 확보하자는 개념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월 2,000원을 아껴서 매월 100만평공원에 회비로 납부함으로서, 최소의 금액으로 부담 없이 개인회원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참여에 의해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주 11. 범시민협과 당시 국민카드사(현재는 국민은행으로 합병되었음)는 상호협약에 의해 'Million Park 국민카드'를 제작하여, 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외에도 1년간의 사무실 임대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 주 12. 범시민협과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Green Paradise' 협약을 맺고,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측은 숙박객 1인당 100원을 적립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100만평문화공원을 함께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주 13. '0.1% 기업'기금이란 범시민협과 기업이 상호협약에 의해 기업총매출액의 0.1%를 100만평공원에 조성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0.1% 기업조인을 한 기업은 (주)이금산업(2003), (주)TG조경(2004), (주)대양조경개발(2005) 등 3개 기업이다.
- 주 14. '밀리언 그린 레스토랑(Million Green Restaurant)'은 100만평 공원과 협약한 음식점이 판매대금의 일부를 100만평공원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100만평공원에서 발간되는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면서 100만평공원을 레스토랑 이용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6호점까지 개설되어 있다.
- 주 15. '밀리언 그린 허스피털(Million Green Hospital)'은 100만평 공원과 병원이 100만평 공원조성에 협력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하고, 병원은 수익금의 일부를 100만평공원에 기부한다. 또한 병원은 100만평공원에서 발간되는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면서 100만평공원을 병원 이용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3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 주 16. 예를 들면, 한 학급의 학생 20명이 매월 500원씩 지금한다면 10개월에 100,000원이 모이게 되어 ○○학교 ○반 출입기념으로 1평의 공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공원이 완성되면 여기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출입 후 기념식수를 할 수 있다.
- 주 17. 총매입금액은 7.7억원이지만, 모든 기금만으로는 이의 지불이 불가능하여 중도금 일부는 회원들로부터 무이자 융자와 은행대출로 대치하였으며, 잔금 5억원은 농협의 융자를 얻어 충당하였다. 당시 공원조성운동의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았을 때, 기금으로는 중도금과 잔금의 지불이 어려워 대부분의 비용을 융자를 받아 공원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은 주민참여운동으로서는 대단히 무리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기금모금 효과를 배증시켰다.
- 주 18. 「100+100플랜」이란 100만평공원을 중심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도심 각 지역에 소규모, 중규모, 대공원을 100만평 조성하여 합계 200만평의 공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발상이다. 공원으로 빼빼(빽빽, 100+100)하게 만들어 이 과정에서 각 지역마다 주민과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공원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네트워크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인용문헌

1.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2003) 한평공원만들기는 주민참여입니다.
2.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2004) 한평공원만들기.
3.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2005) 커뮤니티공간만들기.
4. 김성국(2001) 문화공원 추진전략의 문제와 시민참여방안. 한국청년정책연구소 제20차 청년포럼자료집, pp. 27-38.
5. 김성균(2001) 주민참여에 의한 마을마당설계. 한국조경학회지 29(3): 61-69.
6. 김승환(2002) 아시안게임이후 부산공원계획의 새로운 방향설정. 100만평문화공원 기념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p. 49-63.
7. 김승환, 한창석, 조경21세기를 위한모임(2002) 산관학파트너십에 의한 삼지공원 조성사례 연구. 2002 영남조경포럼 발표논문집, pp. 63-70.
8. 김연금, 성종상, 조석만, 이규목(2003)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소공원 설계 및 조성. 한국조경학회지 31(1): 78-89.
9. 내셔널트러스트운동(2002) 한국내셔널트러스트운동 가이드북.
10.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2002) 100만평문화공원 이야기.
11. 부산강서구청(2001) 100만평시민공원조성 타당성조사.
12. 부산광역시(1999)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부산공원녹지마스터플랜-.
13. 金承煥, 村橋克彥(2001) 韓國釜山の100萬坪文化公園づくり市民運動. 經濟と貿易 183: 1-25.

원 고 접 수: 2005년 12월 26일

최 종 수 정 본 접 수: 2005년 2월 6일

4 인 의 명 심 사 필